

믿음의 기업을 찾아서(1호) - (주)가나다산업 회장 박근주 장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에 마포에서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가 빈 손으로 시작한 (주)가나다산업은 올해 창립 47주년을 양평동 사옥에서 8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맞이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성장하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냐고 물으니 장로님은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의 삶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틈틈이 기부와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표창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장로님의 집무실을 가득 장식하고 있었다.

“향후 특별한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성공과 물질의 축복을 각계 각층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게 되었고, 이것은 장로님의 새로운 비전이자 삶의 목표가 되었다.

11 (주)가나다산업은 언제 설립 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 인가요?

▲ 시골에서 단신으로 올라와 1977년도에 마포에서 회사를 창립하여 지금의 양평동 사옥에서 올해 47주년을 맞이하고 직원은 8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빌딩과 공장을 지을 때 소방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안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 화재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부쩍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화재 예방을 위해 고도의

기술로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가격에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설비 발주 민원은 2차 3차 하청을 거치지 않고 직 발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소방 설비는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 하기 때문에 공사시에 항상 위험이 따르기에 건물이 완공되어 시운전 할 때까지 긴장하며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사장님도 우리 회사 직원들의 안전 사고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 회사를 운영 하시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 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 회사를 운영하며 부도도 많이 맞고 회사를 접으려고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일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 제 곁에서 어려울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기도로 동역해 주고 받아준 아내(지금도 회사 총무이사로 근무 중)와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준 아들(현재 대표이사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집사 박성민 이사)로 근무 중이 있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도 아들이 미래를 보는 생각이 새롭고 경영능력도 탁월하여 저는 2선으로 물러나 하나님의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모든일 무는 아내와 아들이 믿음 있게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대표이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회장으로 물려 앉아 있지요.

가족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해아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가족들에게 감사하지요.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잘 안되면 하나님만 순해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감히 투정도 부리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늘에 쫓아둔 기도의 씨앗이 지금 사용 하라고 내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13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시무장로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단과 후배들을 섬기시는 데 지금도 섬기시는 교회(더드림교회 원로 박우영 목사, 담임 신성관 목사)와 교단, 성결대, 성결신문사 후원회외 여러 곳을 섬기시고 계시는 데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하나님이 주신거 드리는 건데 자랑할게 없나요. 그냥 넘어 가지지요. 몇 번을 질문해도 사양하셔서 결국에는 그동안 제가 아는 자료를 찾아서 제가 간단히 나열 하겠다

- 1) 지난 4월 18일 성결대에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기증(채플관 설립기금 마련), *성결대학교에 박근주 강의실 명명
- 2) 그동안 중국에도 교회를 하나 세웠고 미얀마에도 교회 설립
- 3) 성결신문사 후원회장으로 지원 기타 드러나지 않은게 더 많음.

14 장로님 은퇴 하신지 몇년 되셨는데 아직도 선교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지요?

▲ 저는 젊었을 때 부터 돈을 벌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며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벌어진면 다른 데 쓸데가 나타나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하니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한대로 제 신앙이 그자리로 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5 요즘 (주)가나다산업 경기는 어떤가요?

▲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 걸쳐서 현장이 있고요. 직원들도 80여 명이나 됩니다.

회사 이름도 일등가는 기업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가나다산업으로 명명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니 저는 이에 오래전부터 인센티브로 당연히 보답하니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직원들도 끊임없이 보고가 이루어져서 몇 번이나 인터뷰가 중단 되었지만 회사의 활기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16 마지막으로 성결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제가 타 교단 회교를 출석 하다가 1985년도에 더드림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다니며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 즐겁게 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게 요즘에 우리교단 어느 교회나 부교역자뿐만 아니라 파트전도사 사역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일부지만 신학대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공부 하려는 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교(신학생)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재산이지만 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종자돈이 되어서 하루빨리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공부 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글 - 강병익 장로



박근주 장로와 아내 장정원사, 장남 박성민 집사(좌측부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제2001-3호)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주)가나다산업의 가치입니다!

소망롭게 40여 년의 노하우가 안전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회장 박근주 장로
더드림교회

1978년 창립이래 소방공사 및 소방시설 점검만을 위해 쉬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후 (주)가나다산업으로 범인 전환하여 소방업계 40여 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 기술진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점검 방화관리 및 위험물 특수건축물공사 등 소방기술용역 전반을 동시에 수행하는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3 T.02-2634-0119 F.02-2677-2213
 E-mail : juganada@hanmail.net